

#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20주년 기념행사

## “콩쥐팥쥐도서관서 애니메이션 즐겨요”

군산시, 10~16일 기획전시·홀로그램·VR 체험·버스투어·학술세미나·기념식 등 진행

완주군, 여름방학 맞아 어린이 위해 매일 2회 상영

이달 10일부터 오는 16일까지 군산에서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20주년 기념행사가 열리며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문화재청과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20주년을 맞아 구)조선은행 군산지점, 구)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등 원도심 일원 등록문화재에서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법 제정 이후 20주년을 맞은 올해 전국적으로 많은 등록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보존 및 활용이 잘되고 있는 군산에서 치러진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에 진행되는 기념행사는 등록문화재 제 600호 구)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에서 기획전시, 홀로그램·VR 체험 등을 경험할 수 있으며, 관내 등록문화재를 직접 방문해 해설을 들을 버스투어, 등록문화재 제374호 구)조선은행 군산지점에서 진행되는 학술세미나, 기념식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 ▲기획전시 및 홀로그램·VR 체험

기획전시 및 홀로그램·VR 체험은 매일 10시부터 18시까지(점심시간 12시~1시 제외) 진행되며, 문화해설사의 기획전시에 대한 해설, 홀로그램콘텐츠 체험관 2층에서 독립운동 이야기 등 공연 관람 및 1층 VR체험실에서 감독대탈출과 쌀 수레꾼 VR 등 체험을 할 수 있다.

전시 및 체험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조정에 따라 개인 위생방역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 진행되며 1회 입장객을 30명 이하로 제한해 운영할 예정이다.

### ▲버스투어

행사 기간 중 매일 2회(오전 10시, 오후 2시) 진행되는 버스투어 역시 1회 20명으로 인원을 제한해 진행되며 참가를 원하는 시민들은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 제출(jmp@japro.co.kr)하거나 현장에서 직접 신청하여 체험할 수 있다.

시에 등록돼 있는 23개 등록문화재 중 구)조선은행 군산지점을 시작으로 구 일본제18은행 군산지점, 해방골, 신흥동 일본식가옥(내부관람 포함), 이영춘 가옥(내부관람), 구)발산리 일본인 농장창고 등을 직접 관람하고 전문 문화해설사의 해설을 들을 수 있다.

### ▲학술세미나 및 기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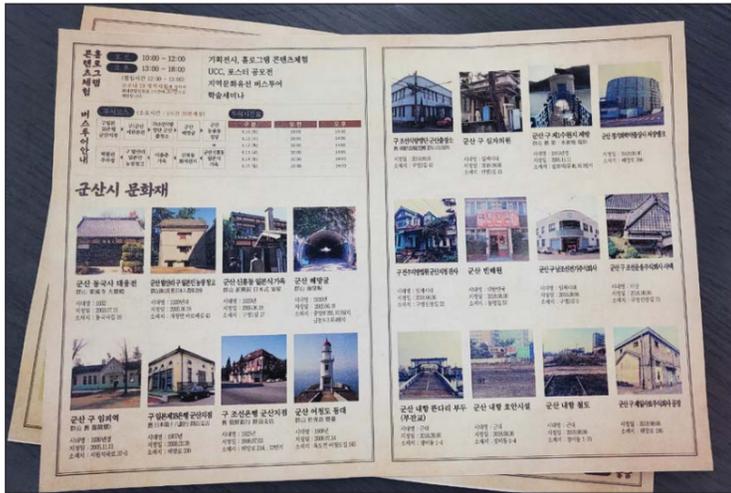
이번 기념행사의 꽃인 학술세미나 및 기념식은 문화재청장, 행정부지사, 부의장 등 귀빈들을 초청해 오는 12일 진행된다.

오후 2시에 진행되는 학술세미나는 이광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의 ‘근대의 기억’과 등록문화재란 주제의 기초강연을 시작으로 문화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사업’에 대해 실시된다. 문화재청 근대화재분과 윤인석 위원장을 좌장으로 지자체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들이 열린 토론을 진행될 예정이며, 세미나는 시 공식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사업’은 기존



군산시는 문화재청과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20주년을 맞아 구)조선은행 군산지점, 구)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등 원도심 일원 등록문화재에서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등록문화재 20주년 기념행사 리플렛 사진.

점 단위 문화재 보존에서 면 단위 문화재의 보존·활용을 위해 지난 2018년 문화재청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해 군산, 목포, 영주 등 3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지난 2019년 영덕, 익산, 통영 등 3개 지자체가 추가로 선정돼 총 6개 지자체가 종합정비계획 수립, 문화재 매입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내향 일원에 ‘군산 내향역사문화공간’이 최종 선정돼 문화재로 등록됐으며,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돼 문화재청 승인 절차를 받는 중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후 5시에 진행되는 기념식은 문화재청장, 전북도 행정부지사, 부의장 등과 함께 제도 도입 20주년 기념영상 상영, 유공자 표창, 기념사 및 축사 등이 진행되고, 기념식 역시 시 공식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근대역사문화의 대표도시인 군산에서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20주년 기념행사를 문화재청장 등을 초청해 치르는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근대화유산 발굴과 보존에 더욱 힘써 우리나라의 대표적 근대문화유산 보존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군산=남현봉 기자

완주군(군수 박성일) 콩쥐팥쥐도서관이 여름방학을 맞은 아이들을 위해 애니메이션을 상영하고 있다.

완주군은 지난달 말부터 오는 21일까지 콩쥐팥쥐도서관에 방문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시리즈별로 애니메이션 영화 상영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콩쥐팥쥐도서관 이용인원은 방학을 맞아 1일 평균 600명에서 1200명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도서관은 이용자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3층 강당(100석)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 영화를 매일(2회) 상영하며, 아이들의 문화욕구를 채워주고 있다.

또한, 2층 자료실에 설치된 만화카페(30명으

로 인원제한)를 찾는 어린이들의 이용수요가 넘쳐나면서 하루 3회(오전 9:00~12:00 1타 임, 오후 2타임(13:30~15:30/15:35~17:35) 나눠 운영하고 있다.

만화카페 대기인원들은 자연스럽게 애니메이션을 감상하며, 무료한 시간을 달래고 있다.

이외에도 콩쥐팥쥐도서관에서는 자라나는 꿈나무 아이들에게 코로나19 극복과 여름방학을 슬기롭게 보낼 수 있도록 ‘어린이 창의과학 여름독서교실’을 운영 중에 있고, 여행·과학 특화프로그램 ‘완주로 떠나는 여행’ 등도 운영한다. 이달에는 3층 전시실에서 ‘치킨마스크’ 동화 원화전시와 ‘전북혁신도시 사진&만경강 그림전시회’ 작품도 함께 전시 운영되고 있다. /완주=이중복 기자



## ‘청춘마이크시너지 전복권’ 참여자 모집

아이엠, 야외·실내 장소서 버스킹 가능 모든 장르 18일까지 접수

사단법인 아이엠은 ‘2021 문화가 있는 날 청춘 마이크 시너지 전복권’ 사업에 참여할 청년 예술가를 모집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공연 장르는 야외 및 실내 장소에서 버스킹이 가능한 모든 장르(대중음악, 양악, 국악, 연극, 무용, 다원 예술, 예술 일반 등)다.

접수는 오는 18일까지 아이엠 홈페이지에서 지원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hhrk3@hanmail.net)로 지원서와 동영상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만 19세부터 만 34세(1986년 1월 1일~2002년 12월 31일 출생)의 청년예술인 1~5인으로 구성된 소규모 팀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5인 이상도 신청은 가능하나 지원금은 5인 기준인 210만원(1회)을 최대로 지원한다.

선발 방법은 서류 및 동영상을 바탕으로 1.5배수 내외(약 50팀)를 1차 선정하고, 2차 화상

실연 오디션 및 인터뷰 방식의 비대면 오디션 심의를 거쳐 최종 28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발 결과는 9월 3일 지역별 주관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원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게 있던 가산점은 그대로 부여하고 지역 신청자에게 주어졌던 지역 우대 가산점은 전국 모든 사업이 동일하게 없어졌다.

이에 따라 지역과 관계없이 모두가 다양한 지역에 신청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

정상한 아이엠 기획이사는 “이번 청춘 마이크 시너지 사업은 학력과 경력, 수상실적에 관계없이 열정과 재능만으로 설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는 만큼, 지역 내 청년예술가들이 만나서 어울리고 함께하며 전문 예술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